



오늘도
무사GO

TS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매거진 구독/취소, 주소 변경 신청 T. 02-2090-6752

TS MAGAZINE

2025 SPRING Vol.82

TS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 SPRING

TS
MAGAZINE

Vol.
82



따스한 햇살이 메마른 세상에
부지런히 온기를 심고 생명을 틔웁니다.
새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자신감도 샘솟는,
모든 것이 새롭게 움트고 채워지는 계절,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TS는 사람과 도로, 철길, 하늘길까지
달리는 길마다 '교통안전'이 꽃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안전의 봄을 심고 가꾸겠습니다.





02 프롤로그

06 이사장 메시지

TS 매거진, 계간으로 더 새롭게, 더 알차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페셜 채널 : Theme_안전



10 클로즈업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TS는 교통안전교육의 요람

14 인사이드

TS 철도교통안전진단 10주년,
국민의 시선으로 ‘철도안전’을 수호하다
- 이광재 TS 철도기술처 부장

18 TS 스포트

자동차 튜닝의 완성은 ‘안전’
TS 튜닝안전기술원

22 리포트

전기차 안전 운행의 ‘해법 찾기’
한국의 전기차 정기검사방법 개발계획

#뉴스 채널



28 K-교통문화

강원도 원주시는
대한민국 교통문화 1번지

32 교통안전 핫 클릭

보이지 않는 위험,
봄철 사각지대 주의보

34 TS 이슈

TS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고령운전자 7명 구했다!

‘오늘도 무사GO,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TS, ‘교통안전 캠페인’ 새롭게 론칭

38 TS 뉴스룸

#플레이 채널



44 TS 커피 충전소

봄봄봄~ 따뜻한 봄날,
향긋한 커피 배달 왔어요
- TS 자동차안전연구원

50 TS 초대석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보드론팀

54 원데이 클래스

분위기를 더하는 빛과
알록달록한 색채의 조화
- 글라스 아트 공예

58 밸런스 게임

착하고 성실한데 일 못하는 동료 vs.
싸가지는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

#컬처 채널



62 On The Travel

봄빛 찬란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KTX 타고 떠나는 순천 여행

66 컬처 드라이브

음악에서 전통까지, 이색 박물관 한 바퀴

70 영화 속 교통 이야기

19세기 파리를 누빈 자전거
장 베로의 ‘볼로뉴 숲의 자전거 별장’

72 TS 안전 스쿨

교통안전 Why? How?

74 TS 스토리 톨

너가 타는 건 키펠드지, 위험이 아니잖아?

76 독자와 수다

우리 동네 스쿨존,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78 TS Quiz Zone

TS 매거진과 함께하는
초성 퀴즈 이벤트



**TS 매거진
계간으로 더 새롭게, 더 알차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TS 매거진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TS는 1982년 <교통안전지>를 창간한 이후, 2016년부터
<TS 매거진>으로 제호를 변경해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TS 매거진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의 사고 예방 대책과
다양한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TS 매거진이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동안 격월로 발간되던 TS 매거진이 올해부터는 계절별로 발간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유익한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더욱 밀도 있는 구성으로 독자 여러분과 오래도록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 혁신, 상생, 공정이라는 TS의 4대 핵심가치를 알리고,
시기별·라이프스타일별 맞춤형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분야 인물 인터뷰,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 및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생생한 화제와 이슈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TS 매거진이 독자 여러분 곁에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TS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TS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SPECIAL CHANNEL



봄호 Theme _ 안전

TS는 2029년 '교통안전 글로벌 TOP10 진입'을 목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체적인 교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TS는 버스·화물운전자 등 운수업 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은 물론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분야에 AI, IoT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스페셜 채널에서는 TS 핵심가치 '안전'을 주제로 TS의 주요 사업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TS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TS의 핵심가치로 그리는 교통안전 로드맵 이야기



TS는 교통안전교육의 요람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TS의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주요 근간이 되고 있다. TS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만나보자.

글 편집실



자동차·도로 분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1/4가량 줄었지만 2021년 기준, 여전히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그 때문에 TS의 다양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이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근간이 될 것이다.

버스운전자양성교육

버스운전자양성교육은 대형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버스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버스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운전자나 대형 1종 면허 소지자 중 경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과정은 교통법규, 안전운전 수칙, 응급처치방법 및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법 등을 배우고 차량 점검 및 주행 실습 등을 익힌다. 교육 신청은 TS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버스운전자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륜차 라이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륜차 라이더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배달업 신규 입사자 및 종사자, 일반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기술을 습득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이륜차 교통법규, 방어운전 기술, 사고 사례 분석 등을 다루며 주행과 제동, 조향력 향상, 균형과 제어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이 교육은 라이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

1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 2 찾아가는 VR 4D 시뮬레이터 택시운전자 교육



2



3 이론차 교통안전체험교육
4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교육
5 공공 분야 드론 임무특화교육
6 TS 시흥드론교육센터 전경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TS는 화성·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교통안전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 교육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운수회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증진 등을 위해 지정된 교통안전 담당자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또한 TS는 현대글로벌비스와 손을 맞잡고 화물차운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컨설팅,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과정 운영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과정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기존 사업자와 양수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며, 교육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 운송 서비스 기준, 경영 및 안전운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교육 신청 전에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에코드라이브 교육

TS는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시행 중이다. 이는 연료 절감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운전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경제적인 가속 및 감속 방법, 공회전 줄이기,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 연료 효율을 높이는 주행 기술 등을 배우며 실습을 통해 실제 연비 절감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차량 운전자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연료비 절감과 차량 유지 비용 감소 효과도 강조된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교육

TS는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TS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은 2022년 21만1,261명, 2023년 26만2,743명, 2024년 27만3,10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총 1만104회(전년 대비 214회 증가)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과 고령자 교육 참여가 크게 늘었다.



항공산업은 첨단 기술과 철저한 안전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 교육은 필수 중의 필수다. TS는 항공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종사자 교육

항공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명시험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종사자 및 항공안전관리자의 안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인적요인과정(운항·정비)'과 'SMS 위험관리과정'을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 또한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조종교육증명 안전보수교육을,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드론을 전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기관의 시설, 인력, 규정 등을 점검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관 등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산림·환경·측량 등 실무형 조종 인력을 양성해 국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드론 체험교육

TS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드론 조종 및 활용 기술을 배우고 안전한 운용법을 익히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드론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법규, 조종 방법 등을 배우는 이론 교육과 비행 체험으로 구성된다. 어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드론의 역할과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TS는 '2024년 드론 체험교육'을 운영, 442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드론의 원리와 조종법을 배웠고,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는 219가족이 드론 조종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TS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화성교육센터
☎ 031-8053-9800

상주교육센터
☎ 054-530-0100

TS 항공교육운영 포털사이트





사진 왼쪽부터 철도기술처 이광재 부장, 박재범 과장, 김민호 과장, 신관수 차장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철도 수송 인원은 무려 1억7,149만 명에 달한다. 해당 수치는 간선철도 기준으로,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이용객 수는 더욱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애용하는 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로 철도교통안전진단 10주년을 맞은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광재 TS 철도기술처 부장과 함께 ‘철도안전’의 가치를 되새겨 보았다.

글 오민영 사진 장병국

TS 철도교통안전진단 10주년, 국민의 시선으로 ‘철도안전’을 수호하다

이광재 TS 철도기술처 부장

이광재 부장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0년간 몸담아 온 철도안전 베테랑으로서 다채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철도안전실 철도기술처에서 근무하는 이광재입니다. 2014년 철도토목 분야 경력직 공채로 입사하면서 어느새 공단과 함께한 지 1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14년간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철도설계 감리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해 각종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금은 철도교통안전진단(이하 ‘철도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S 철도안전실 철도기술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또 부장님이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궁금합니다.

철도기술처에서 수행하는 안전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설계 단계에선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건설 시 각 노선 개통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도종합시험 운행 결과 검토’가 이뤄집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철도역사 이용자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를 추진하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에선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 평가’를 시행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철도시설 생애주기에 따라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소개하다시피 저는 철도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자 관점에선 열차 운행이나 시설 이용 과정, 그리고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와 승강장 간 간격이 넓어 승객이 내릴 때 자칫 헛디딤 염려가 있다든지, 교통약자 이동이나 대피를 뒷받침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죠.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고 편리성은 한층 높이고자 설계 단계 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안전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안전’과 관련해 한창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고요.

대규모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가 전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기 GTX의 총 세 개 노선 가운데, 2024년 3월 가장 먼저 개통한 GTX-A 1·2단계 역시 TS의 철도안전진단을 통해 설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철도종합시험 운행 결과 검토를 무사히 거쳐 적기에 문제없이 개통했죠. 그 공로로, 철도기술처에서 GTX 개통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또한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정부에서 사업 대상으로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 등 세 곳을 선정했으며, 철도를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은 복합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에서 TS가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듯합니다. 대심도철도안전진단, 즉 지하 40m 이상 깊이에 철도를 안전하게 놓도록 진단하고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의 사업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 결함에 따른 철도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철도기술처는 진단팀과 함께 10년 간의 사고 사례 분석을 추진해 설계 단계 중점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지하철 8호선 북정역 가스 누출 사고, 2024년 6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감전 사고 등을 비롯해 시설 내 성범죄와 같은 안전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사항 확인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TS는 2015년부터 10년간 GTX, 서울 경전철 신림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등 총 40건의 설계 안전진단 수주와 시행에 힘써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손꼽는다면요. 더불어 그간 수행한 진단 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TS가 진행했던 철도안전진단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년 GTX-A와 2024년 GTX-C, 그리고 올해 1월 완료한 GTX-B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트램을 성공적으로 진단했고,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철도안전진단 시 가장 먼저 시행하는 현장 조사는 설계 대상 노선을 몸소 걸어 다니며 주위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즉, 설계노선을 보며 며칠 동안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철도 역사를 세웠을 때 보행로가 좁아질 가능성 같은 개선 사항을 찾는 셈입니다. 2023년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연장 구간 현장 조사 당시 한여름이라 제일 더울 때, 전



중앙선 매성터널 시점 철도시설 기술기준 검토



노면전차 기능시험 평가 장비 외부

노선을 살피고 나자 온몸이 땀이더라고요. 업무를 잘 마치고 마시는 아이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상쾌하던지요.(웃음) 최근 갔던 광주송정~순천 간 철도 현장 조사에선 노선이 거의 내비게이션조차 작동하지 않는 산지여서 도면과 위성지도에 의지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소 고되긴 하지만, 철도안전진단 이후 검토한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마주하면 반갑고 보람 있습니다. 두 딸아이에게 ‘아빠가 해낸 성과’라고 자랑할 정도랍니다. 아울러 2024년 11월 부서 차원에서 보행문화개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아 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앞서 소개했듯, 철도안전 영역에서 전문성과 우수 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철도안전실 기준으로 행정직을 제외한 직원 73명 가운데 11명이 철도, 토목, 안전, 전기, 신호, 차량 등 분야별 국가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학 박사는 8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이곳 직원은 대다수가 제작,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연구 등 관련 경력을 갖고 입사한 우수 인재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국민 철도안전 구현을 위해 학위나 자격 취득, 교육 참여 등 자기 계발과 역량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철도안전진단 10주년과 동시에 누적 115억 원 수주를 달성한 TS에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간 누적 수주 115억 원이라는 성과는 앞서 15년부터 철도안전진단에 최선을 다한 우리 철도기술처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TS의 모든 임직원이 완성했습니다. 더욱이나 예산처와 협의해 작년 수주한 30억 원으로 2024년 10월 대전에 공단 철도자격시험장을 신축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엔 아직 철도역사에 특화된 무장애 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TS가 이뤄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국내외 자료 조사,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컨설팅 등의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6
우리나라엔 아직 철도역사에 특화된 무장애 환경(BF)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TS가 이뤄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9



자동차 튜닝의 완성은 ‘안전’

TS 튜닝안전기술원

자동차도 개성 시대인 만큼 ‘안전’은 그 어떤 변신보다 중요한 요소다. TS 튜닝안전기술원은 자동차의 안전한 변신을 돕는 출발점으로, 튜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자동차 부품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으로 대한민국 튜닝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TS 튜닝안전기술원을 만나보자.

글. 편집실

튜닝안전기술원은
고도화된 장비와 시설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afety



1, 3 튜닝안전기술원 내부 전경
2 김천에 위치한 TS 튜닝안전기술원



첨단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튜닝 전문 기관

경북 김천에 위치한 TS 튜닝안전기술원(KATIS). 2024년 1월 업무를 개시해 올해로 개원 1주년을 맞은 이곳은 안전한 튜닝 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튜닝 전문 시험기관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능과 개성을 살린 안전을 보장할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에 TS는 튜닝 부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규제 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튜닝안전기술원을 설립했다.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 신규 튜닝 항목 개발, 튜닝 자동차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튜닝안전기술원은 5만392㎡(약 1만5,000평) 규모의 대지에 튜닝안전시험동, 광학시험동, 충격연결장치시험동 세 곳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시험동은 고도화된 장비와 시설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튜닝안전기술원은 2024년 3월 튜닝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현재 좌석 안전띠 및 좌석 잠금장치, 연결장치, 등화장치(전조등·제동등 등), 진동시험 등 약 17가지 항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튜닝안전기술원은 기존에 안전성 검증이 어려웠던 튜닝 부품에 대한 직접 시험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튜닝하는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보장된 튜닝 부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

CAR TUNING



4

4 튜닝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위한
김천시, 대구대학교, 김천대학교와의 업무협약

5 광학시험 모습

6 천정 강도시험

‘튜닝안전확인부품’ 제도 시행으로 국민 편의 높여

튜닝안전기술원은 2024년 8월부터 ‘튜닝안전확인부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동차를 튜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은 TS가 직접 안전 기준을 확인한 부품으로,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주로 경미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TS는 2024년 6월 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8월 27일 제1차 튜닝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첫 번째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 조명등,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튜닝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튜닝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튜닝안전기술원은 이를 시작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 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한 튜닝 문화를 정착시켜 튜닝 부품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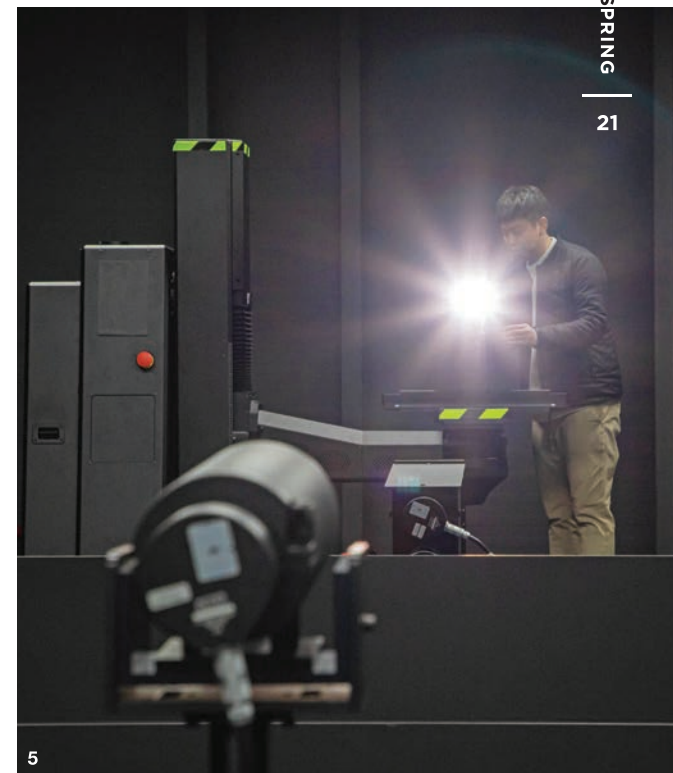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튜닝 인재 육성에도 앞장

튜닝안전기술원은 튜닝 안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천시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인프라가 집중된 곳으로, 튜닝안전기술원의 설립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튜닝안전기술원은 김천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김천시와 협력을 통해 튜닝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튜닝안전기술원은 2024년 12월 자동차 튜닝산업의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김천시, 대구대학교, 김천대학교와 튜닝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튜닝안전기술원과 협약 기관들은 튜닝 전문 디자이너와 산업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TS는 2024년 9월 영남이공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튜닝안전기술원은 2024년 3월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기자동차과학교등학교, 세경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TS 튜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은 물론 튜닝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튜닝안전기술원은 개원 1년 만에 안팎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며 자동차 튜닝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튜닝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한 튜닝 문화 정착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튜닝안전기술원은
개원 1년 만에 안팎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며
자동차 튜닝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6

전기차 안전 운행의 ‘해법 찾기’

한국의 전기차 정기검사방법 개발계획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미래를 향해하다: 전기차 안전관리 기술혁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전기차의 제작 기준은 강화됐으나, 운행 단계에서의 정기검사방법과 정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전문가들이 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운행 중에도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기차 정기검사방법 개발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글_ 편집실 자료_ TS 첨단연구개발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전기자동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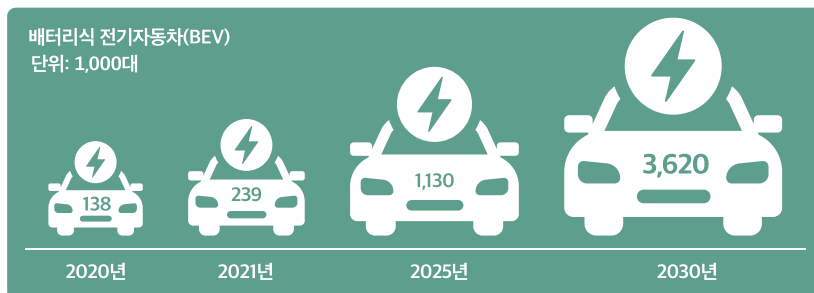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해 5년마다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436.6백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올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정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보다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안정적인 도입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2020년 글로벌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321만 대였으나, 2023년에는 1,397만 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20%에 달했다. 연평균 63%씩 증가한 규모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10만 대로 전기차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이 320만 대, 미국이 140만 대 순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000대로 2023년 말 54만4,000대보다 약 11만7,000대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침체됐으며,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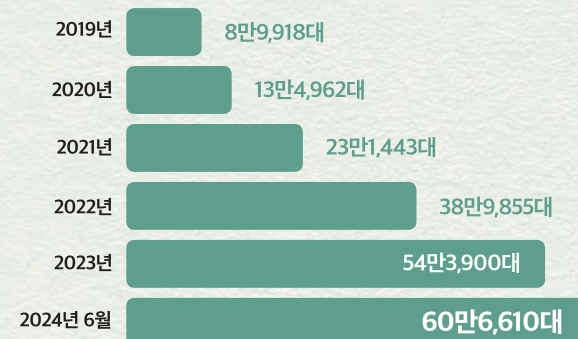
◆ 2030년 온실가스배출목표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목표 출처: 정부 2050 CNC, 2023. 3.

| 운송 부문 37.8% | ZEV* 도입 촉진 및 충전 인프라 확대 |
|---------------------|---|
| (2018년) 98.1백만 톤 | ZEV(무공해차량) 450만 대 도입을 달성하기 위한 구매 촉진, 공공 부문 의무조달 등 |
| (2030년) 61.0백만 톤 | 전기자동차 충전기 123만 대 이상, 수소충전소 660개소 *전기자동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2030년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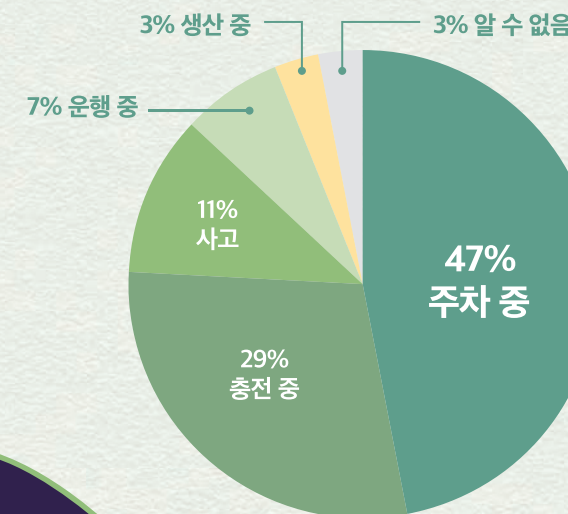
◆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상황별 전기자동차 화재 사례(비율)

출처: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2023





1 TS가 2024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를 향해하다: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세미나
2 TS가 2024년 11월 개최한 '친환경자동차 특화 검사 진로 시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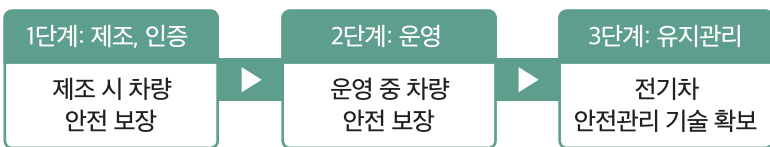
국내외 전기자동차 검사 시스템 현황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등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가 화재·폭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제작 기준은 강화됐으나,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정기검사 및 정비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외 동향과 정부 정책을 연구하며, 국내 전기차 분야의 민·관·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최적화된 전기차 정기검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관련해 중국은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보급국인 중국은 2024년 3월부터 '전기차 운행 안전성능검사'를 의무화해, 운전자는 매년 배터리 및 구동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받아야 한다. 원격 시스템을 통한 사전 점검 후 배터리, 구동 모터, 전기 제어 시스템, 전기 안전 등 필수 항목을 검사하며, 배터리는 SoH(State of Health) 측정을 통해 내부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자동차 운행 중 배터리 성능 저하 및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 정기기술검사 후 배터리 상태 진단 결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 검사 방식은 배선 상태 및 접속점 손상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충전 포트 절연저항시험과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활용한 배터리 관리 진단만을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진단 기술 개발과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검사 방법 개선이 요구됐다.

3단계로 이뤄지는 전기차 안전관리방법 개발계획

TS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안전관리방법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해 제조 시 차량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검토할 연구 사항으로는 냉각 시스템 및 소재, 방염 소재 및 화재 지연 구조 설계 기술, 화재 감지 및 알림 기술 등이며 전기차 안전 평가 기준 역시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전기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평가기술을 개발해 운행 중인 전기차의 안전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배터리 진단 평가 기술, 전담 전기자동차 정기기술검사 시스템 등이 연구된다.

3단계는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다. 전기차 정비 및 수리 관리 사업에 관한 법규, 기존 정비 인력의 전환과 확장, 교육 및 신규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전기차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방법 개발을 위한 세부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충전 지점을 통한 절연저항검사 간소화, 전기차 경고음 시스템 검사장치 개선, 주행 데이터에 따라 다른 배터리 성능/안전검사 등의 세부 연구를 진행한다.

절연저항 검사장치는 속도와 편의성을 위한 충전기 사양을 도출하는 것으로 500V 절연저항 검사장치를 개발해 각 충전 포트에 대한 자동 측정 기술을 보유했다. 이는 현재 전기차 충전전압에서 개발된 장치로 충전 포트 어댑터(COMBO)다. 1차 시제품을 통해 기존 검사장치의 정확도를 점검해 차량 적용성 연구도 마쳤다. 향후 절연저항 검사장치 및 기술 개발을 위해 1,000V 절연저항 검사장치를 개발하고 충전 포트 유형별 어댑터 5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사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 검사 환경(PTI 환경)을 고려하고, 소음 측정 시 발생하는 잡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검사장치의 개발 방향을 선정해 외부 소음을 고려한 검사장치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리 크기 dB 분석, 1/3 옥타브 분석 등 데이터 분석 방법을 연구했다. 연구한 검사 기술과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검사장치 개발이 완료됐으며, 이를 실제 전기차 검사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했다. 개발한 검사장치는 실제 검사센터에서 운영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배터리 성능/안전검사 방법은 주행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전기차 검사장치의 개념을 선정했다. 차량 성능을 측정하는 장치(다이노모)를 활용해 검사장치의 구성을 완성하고, 배터리 검사를 위한 핵심 요소(예: OBC, 온보드 충전기)를 선택했다. 전기차 검사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배터리를 검사하는 다양한 모드를 분석하고 검사 모드 및 다이노모 제어 방법은 물론,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SOH: 배터리 건강 상태, SOB: 배터리 사용 상태).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 주행 모드에서 배터리 검사 방법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TS는 이러한 연구와 함께 전기차에 최적화된 검사 라인 구축을 바탕으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기차 검사 라인 구축을 위한 내연기관 차량 검사 라인 개선 계획



NEWS CHANNEL



뉴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 도로, 철길, 하늘길까지 TS가 지키는 교통안전 이야기



강원도 원주시는 대한민국 교통문화 1번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쾌거

강원도 원주시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를 차지하며, K-교통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은 물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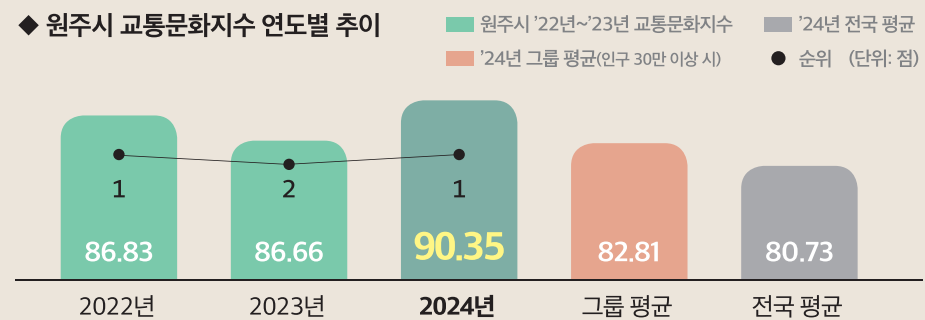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통문화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시 가운데 교통문화지수 2022년 1위, 2023년 2위에 이어 2024년 1위를 다시 거머쥐며 교통안전 우수 도시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원주시는 2024년에는 교통문화지수 90.35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80.73점)을 크게 웃돌았다. 그룹별로 교통문화지수 평균을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는 82.81점, 인구 30만 미만 시는 81.97점, 군 지역은 79.95점, 자치구는 79.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원주시는 각 그룹의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9.62점이 높은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통법규 준수율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신호 준수율은 99.84%(전국 평균 96.80%),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9.43%(전국 평균 85.26%), 횡단 보도 신호 준수율은 99.06%(전국 평균 92.4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운전 및 보행 행태에 관한 11개 지표 중 대부분이 상위권에 올라, 원주시가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 꾸준히 앞장서 왔음을 지표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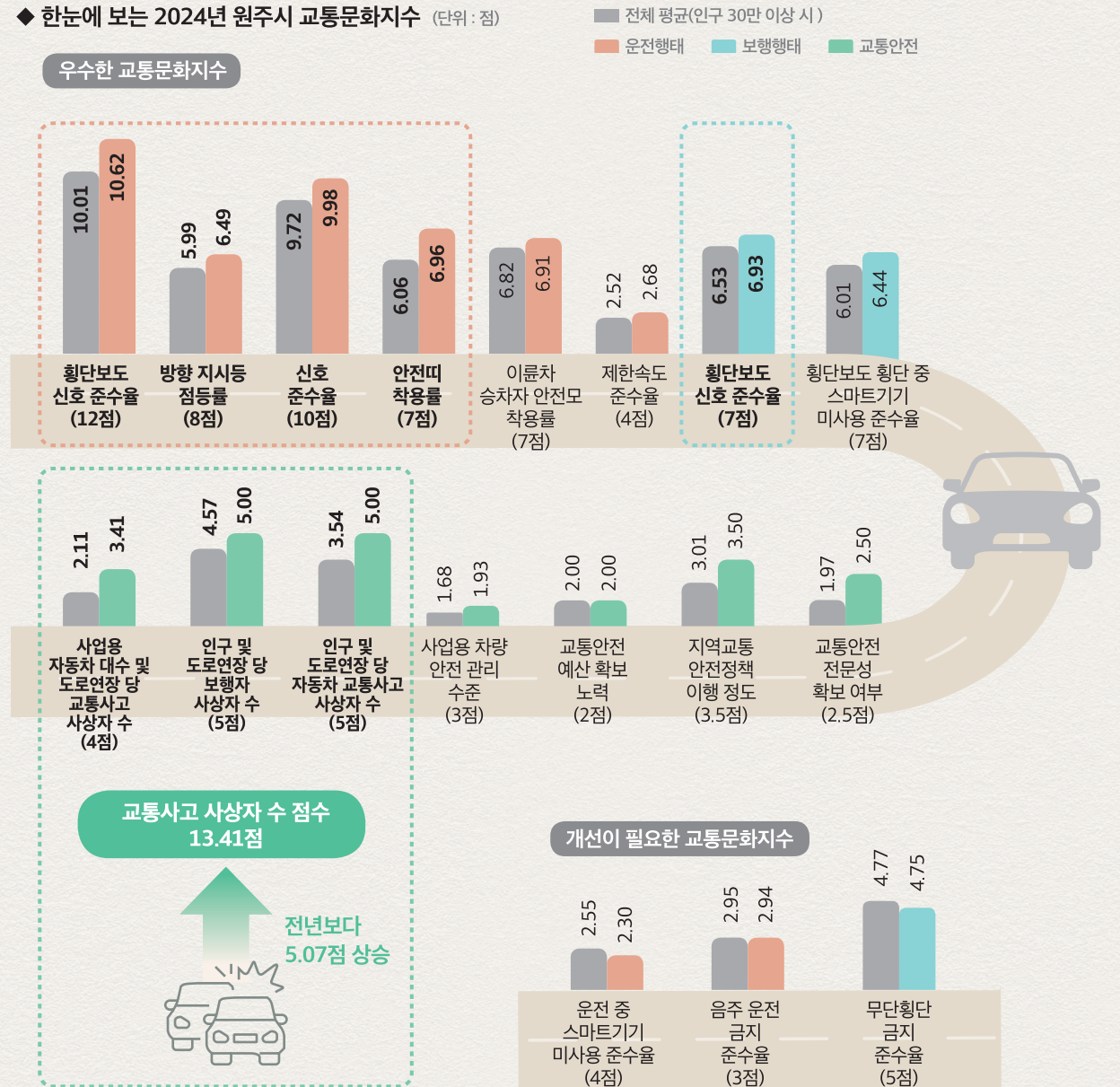
특히 원주시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부문 점수에서 전년(8.34점) 대비 5.07점 증가한 13.41점을 기록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연간 270억 원의 교통안전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한편, 원주시는 운전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음주 운전 금지 준수율 부문에서는 다른 유사 지자체들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원주시 교통문화지수 연도별 추이



◆ 한눈에 보는 2024년 원주시 교통문화지수 (단위: 점)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해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문화 우수도시'를 선정·포상해 지자체 간 자율적 교통안전 경쟁은 물론 교통문화 향상을 촉진한다.

원주시장과 관계자들의 버들초등학교 교통현황 현장 점검



교통난 해소부터 시민 안전 확보까지, 원주시 적극행정 빛났다!

버들초등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글 편집실 사진 원주시



원주시와 버들초등학교, 학부모회 간담회

#2024년 1월부터 교통난 해소에 신속 대응

원주시가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로, 시민 안전과 교통난 해소에 앞장선 '적극행정'을 꼽을 수 있다.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개청으로 인한 버들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버들초등학교 앞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버들초등학교, 동부복합체육센터, 공동주택(푸른숨4단지) 등 주요 시설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다. 이로 인해 출근시간대 교통체증이 극심했고, 주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원주시는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원주시는 2024년 1월 버들초등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통학 차량 회차를 위한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 3월 개학 이후에는 매주 현장 점검과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버들초사거리와 버들초등학교 정문을 잇는 내부 도로를 4차로로 확장했으며, 5월에는 삼보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친 데 이어 혁신로 대로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조성, 연초부터 추진한 버들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부서 및 민관 협업으로 이룬 적극행정 우수사례

원주시는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의 좁은 도로에 집중하던 차량 흐름을 분산하면서 교통체증을 완화했다. 또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해 등·하교 시 교통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다. 민관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도 개선했다.

원주시는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했다. 또 원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원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적극행정 문화 조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안겨준 비결이기도 하다.



버들초등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과정

2024년

1월 12일

버들초등학교 대표단
원주시장과 간담회 개최

1월 16일

버들초사거리 교통 대책
마련(교통행정과 외 4개 부서)

2월 14일

민관 교통안전 협의체 간담회

3월 15일

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3~4월

버들초사거리 교통 상황 모니터링
(총 19회)

3~5월

신호체계 조정(원주시, 원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4월 8일

원주시장 통학로 현장 점검

4월 9일

버들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
(3차선→4차선)

5월 1일

삼보골 진입도로 확장 공사 완료
(이면도로→왕복 2차선)

5월

버들초사거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

보이지 않는 위험, 봄철 사각지대 주의보

완연한 봄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떠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과 함께 찾아오는 나른함은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봄철에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서란희 시니어 기자(77세)



봄철 사각지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따뜻한 봄날에는 도로 위 풍경도 달라진다.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교통 흐름이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맘때쯤 운전자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사각지대 교통사고다. 시야를 가리는 환경적 요인과 변화하는 교통 상황이 맞물리면서 봄철 사각지대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봄철에 사각지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든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봄철에는 꽃가루와 황사가 많아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봄철 꽃가루 농도는 겨울보다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 이는 차량의 유리창과 사이드미러에 쌓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봄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짙은 안개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

해 사각지대 내 보행자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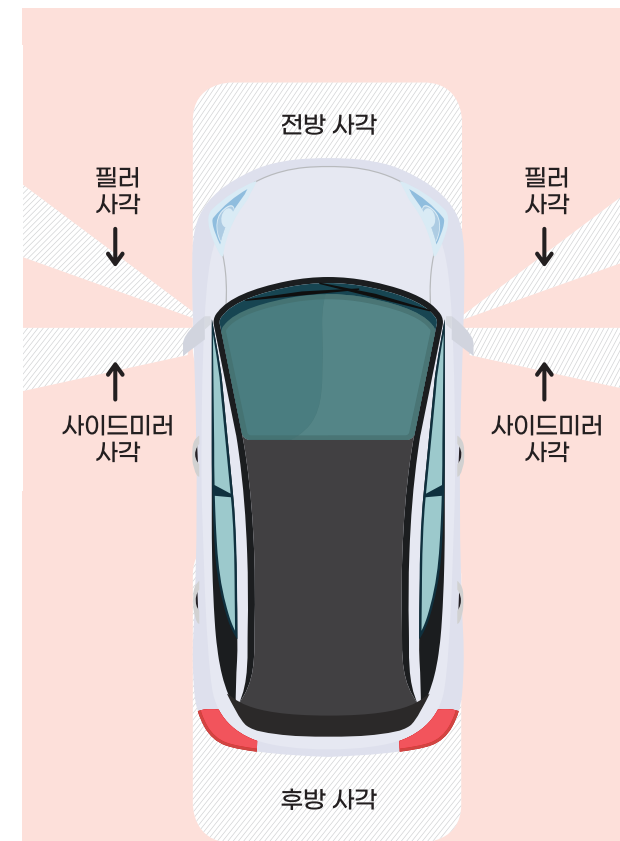
두 번째는 교통환경의 변화다. 봄이 되면 나들이 차량과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 교통량이 약 20% 증가한다. 차량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도로가 혼잡해지면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아슬아슬 따뜻한 날씨로 인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이륜차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워 사각지대 사고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운전자 주의와 안전운전 습관이 사각지대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

자동차 운전 시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량 관리와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차량 유리창과 사이드미러에 쌓인 꽃가루나 황사는 수시로 닦아내고, 와이퍼와 워셔액 상태를 점검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또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Blind Spot Detection, BSD), 후방카메라, 광각 미러 같은 보조장치를 적극 활용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차량 내부 공기 관리도 필수적이다. 공기청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해 봄철에는 2개월마다 점검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에는 차선 변경, 회전, 주차 시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 차선을 바꿀 때 후방 차량의 접근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운전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한다. 차선 변경 시에는 '3초 거리 룰'을 적용하고, 룸미러와 어깨 너머를 차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존보다 20%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봄철 도로 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작은 습관부터 바뀌어나간다면 더욱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진다. 아무리 차량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주의와 안전운전 습관이다.



자동차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사이드미러 조절하기

- 자동차 뒤쪽 부분이 사이드미러 안쪽 1/4 정도에 보이도록 조절
- 세로 방향은 하늘과 지평선을 맞닿는 부분이 1:1 되도록 조절해 사각지대 최소화

운전석 시트 조절

- 운전석 시트 안쪽에 엉덩이를 붙이고 어깨를 붙인 다음 105도 각도로 맞추고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안정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조절

룸미러와 솔더 체크

- 직접 고개를 돌려 전방과 측면을 직접 확인
-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 반드시 실외 사각 미러를 이용해 전방 확인 후 출발

TS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고령운전자 7명 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충남 예산군과 함께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추진한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7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AIoT) 기반 기술을 이용해 사고 시 소방서·경찰서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CCTV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글·편집실 사진·예산군

고령운전자 구조 사례

2024년 9월 23일 오전 11시 31분경, 예산군에서 고령운전자가 저혈당쇼크로 이륜차 운전 중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90초 만에 가족에게 긴급 문자가 발송되었고, 이에 따라 소방서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효과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IoT 기반 기술로 사고 시 소방서·경찰서에 자동 신고

충남 예산군에서 시범 운영한 TS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고령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독특한 효과를 발휘해 주목받고 있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사물인터넷(AIoT) 기반 기술을 통해 충격량 및 기울기 등 모션센서가 사고의 경중을 판단해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 이륜차 운전자의 혈액형 및 지병 등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돼 신속한 개인 맞춤형 응급 대응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고령운전자 7명 구조

TS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피해 고령운전자 7명을 구조했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이 도입되기 전인 2023년 7월 예산군에서는 이륜차 단독 사고 발생 후 사고자 발견부터 신고까지 총 56분이 걸려 고령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시범사업 기간 내 발생한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들은 사고 발생 후 90초 만에 사고를 인지했고, 이후 119 신고에 이르기까지 약 5분이 걸려 사고 발생부터 사고 신고까지 소요 시간이 약 91%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설치한 고령운전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수행 결과, 응답자의 70%(21명)가 “이륜차 사고자 동신고 시스템 도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빨리 구조될 것 같다”고 응답해 시스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TS, 시스템 고도화해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TS는 예산군과 함께 추진한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CCTV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보급을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TS는 예산군청,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주)별따라가자와 함께 이륜차 총 250대에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설치, CCTV 관제 시스템으로 24시간 고령운전자 이륜차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및 경찰서의 오신고를 방지하고 사고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 재확인 모델을 정립하는 등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했다.

TS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광역지자체 또는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뿐 아니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적용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농어촌 지역 고령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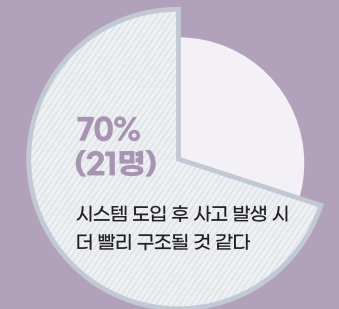
1, 2 예산군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및 정기검사 현장



기간 2023. 11. 30.~2024. 11. 17.
사고 구조 7건
사고 위치 논·밭(3건), 마을길(2건), 지방도로(2건)
사고 유형 및 피해 단독사고(6건, 경상), 차대차 사고*(1건, 중상)
*차대차 사고, 피해자 과실(0%)



◆ 시스템 설치한 고령운전자 30명 심층 면접조사 결과





우리는 오늘도 안전한 귀가를 바라며 출근길, 등굣길, 여행길에 오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7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GO,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를 새롭게, 야심차게 론칭한 이유다.

글_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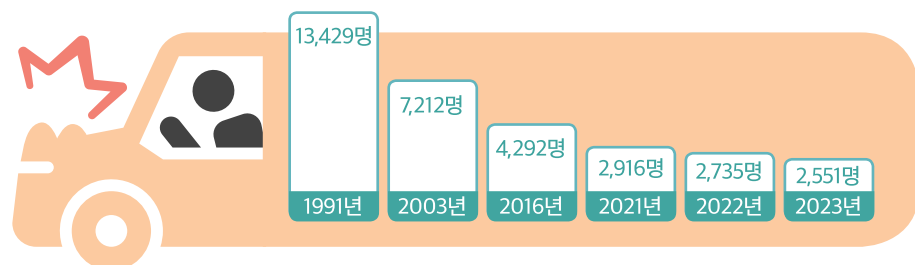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 캠페인 필요성 대두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429명으로 정점에 이르자,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에는 3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2,916명으로 줄어, 2,000명대로 앞자리가 바뀌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3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2,55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전히 하루 평균 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범정부 차원의 새롭고 혁신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이 필요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1991~2023년)



TS, 교통안전 캠페인 론칭으로 국민 교통안전 인식 개선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오늘도 무사GO,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점점 무뎌지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도 다시 환기시켰다. 잘못된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줄고 있고, 안전운전 습관과 실제 행동 간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깨워 줄 간절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TS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집중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이끄는 대표 캠페인 중심의 통합 홍보가 필요했다.

TS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번에 새롭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론칭했다. 대표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 안전운전 실천을 촉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5,000만 국민 모두가 매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TS의 교통안전 캠페인은 '쫓' 진행형이다.

캠페인 브랜드 광고



#TS NEWS

1

불법 튜닝, 작년 2만7,000대 적발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위반사항 3만5,323건 시정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자동차 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만6,712대를 단속해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

2024년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 감소,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만5,323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 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 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단속됐다.



2

TS,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교육청 합동 전국 11개 학교 대상
교통안전점검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인천·부산·경기·경북 소재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3월 말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학교 ▲2025년 개교 학교 ▲교통안전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반경 300m 이내)'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점검은 TS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 ▲학교 및 학부모 요청에 따른 통학로 교통안전 위험 요인 분석 ▲통학로 내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 특성 조사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적정성 평가 등을 추진했다.

TS는 통학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HIGHLIGHT

3

TS, 고객센터 품질 혁신으로 국민 만족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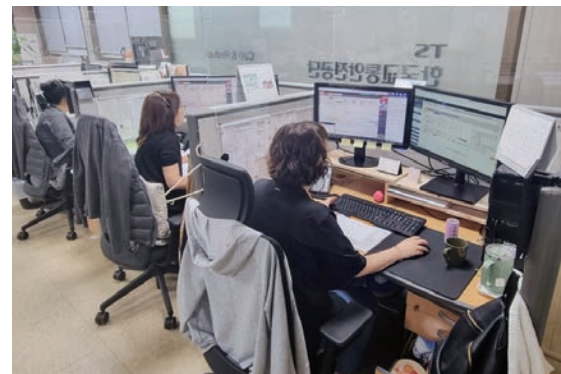
자동차 검사·튜닝·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등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국민 편의를 높인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TS 고객센터(1577-0990)는 자동차·이륜차 검사·튜닝, 운전정밀검사, 운수종사자(화물·버스·택시) 자격시험, 화물운송 실적 관리, 교통안전관리자, 위험물질 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S는 올해 ▲고객콜센터 운영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상담콜 고객 평가, 상담사 포상 강화 등 상담 품질 향상 ▲사업 부서 소통 강화, 평가지표 개선 등 3대 기본 방향을 갖고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TS는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콜센터의 음성 데이터망 분리 및 이중화 추진으로 통화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2023년 11월 고객센터 통합 이후 불필요해진 통화 회선을 정리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4

자동차 사고 원인 신속 규명 협력체계 구축

국토부·경찰·도로공단·국과수·
손배원 등 유관 기관 참여 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에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TS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양재동 회의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관련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여한 유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업무 소개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와 관련한 기관별 주요 현황을 공유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과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S SNS HIGHLIGHT

유튜브(숏츠 & 영상)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텐주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해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 #도로교통법



2024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횡단보도 안전 수칙 미준수!

2024년 교통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보행자가 여전히
횡단보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안전 수칙,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
국가 모빌리티 혁신 파트너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
원센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혁신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 #모빌리티
#모빌리티지원센터



인스타그램



잠깐!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하셨나요?

작은 습관이 큰 생명을
지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
#안전벨트착용 #안전벨트착용법
#운전습관 #안전운전



안전운전의 기본!
신호 속도를 지켜주세요!

2024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신호와 제한속도 준수율이 전년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제한속도
#고속도로제한속도 #도로별제한속도



블로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무엇이 더 안전할까?

말로만 이야기했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충돌 안전 성능 차이!
과연 어떤 차가 더 안전할까?
호주에서 실험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디젤차 #자동차충돌테스트 #NCAP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PLAY CHANNEL



즐거운 소통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TS 임직원은 물론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통 이야기



붕붕붕~ 따뜻한 봄날, 향긋한 커피 배달 왔어요

TS 자동차안전연구원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이지만 불현듯 따스한 기운이 찾아온 어느 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커피트럭이 찾아왔다. 카페에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이곳에 찾아온 핑크빛 커피트럭을 맞이하러 버선발로 달려 나온 자동차안전연구원 식구들의 얼굴에는 그야말로 기분 좋은 설렘이 한가득! 바야흐로 봄이었다.

글_이경희 사진_장병국 영상_최의인

직원들을 위해 커피트럭이 온 건
입사 이래 처음 봤거든요. 바쁜
일과 중에 심표가 딱, 찍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coffee truck

커피 충전하고 가세요

두툼한 외투가 무색하던 3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안마당이 모처럼 북적거린다. 화사한 핑크색 트럭이 자리를 잡고 부지런히 손님 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일찌감치 찾아와 기웃거리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폰을 꺼내 커피트럭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럿 보인다. 무엇보다 커피트럭을 장식하고 있는 “<TS 매거진> ‘TS 커피 충전소’에서 자동차 안전 연구도, 달달한 여유도 가득 채우세요”, “커피는 안전을 싣고! 오늘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커피 충전하고 갈게요” 문구에 모두가 꽤 감동한 표정이다. 커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커피 외에도 다양한 에이드와 티가 있는 걸 보고 놀란 직원들이 서둘러 메뉴를 찍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송하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모습도 마냥 즐거워 보인다.

약속한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달려온 직원들이 순식간에 길게 줄을 늘어선다. 하늘은 푸르고, 커피트럭은 핑크빛이고, 직원들의 미소는 초록빛이니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다. 여기에 웃음소리와 수다까지 끊이지 않으니 연구원 안마당이 마치 소풍 현장 같다.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커피트럭이 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행사를 위해 커피트럭이 온 건 봐어도 이렇게 온전히 직원들을 위해 커피트럭이 온 건 입사 이래 처음 봤거든요. 바쁜 일과 중에 심표가 딱, 찍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줄 서 있던 나형호 선임연구원(자율주행연구처)이 파안대소를 한다. 나란히 선 채 시원한 음료를 기다리는 K-City연구처 박소정 연구원과 이진석 연구원 역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쿠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ookie

기대감을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이렇게 회사 안마당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니까 소소한 행복이
느껴져서 좋아요.



“게시판에서 커피트럭이 온다는 소식을 보고 기대감을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이렇게 회사 안마당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니까 소소한 행복이 느껴져서 좋아요.”
오늘은 커피와 함께 커다란 쿠키도 제공됐는데 모두가 실험이라도 하듯 아주 신중하게 쿠키를 고르고 또 고르는 모습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한다.

자동차 안전의 모든 것

오늘 준비된 커피와 음료는 총 200잔. 커피트럭 안쪽에서는 부지런히 커피를 내리고 과일청 원액을 따르며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바쁘다. 인상적인 것은 직원들이 바빠서 미처 내려오지 못하는 동료들을 위해 별도로 음료를 주문하고 쿠키까지 야무지게 챙겨 가는 모습. 직원들의 이런 동료애 가득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는 연구기획처에서 근무하는 김남용 책임연구원도 있다. 2011년에 입사, 14년이 훌쩍 넘도록 한결같이 연구원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민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 및 정책·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지요. 우리 연구원에는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고 리콜 업무를

하는 결함조사본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자율주행본부, 자동차의 기분이 되는 엔진출력, 연료 소비율, 자동차 부품 등을 연구하는 미래차연구본부 그리고 소규모 제작사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관리하는 인증정책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경영을 책임지는 연구기획실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4개의 본부와 1개의 실로 구성된 조직에서 약 200여 명의 직원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남용 책임연구원이 자부심과 함께 한없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그간 국민의 생활 곳곳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곳이기도 하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BMW 차량 화재 건이다. 연이어 발생한 BMW 화재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결함이 문제라는 걸 밝혀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김남용 책임연구원은 이때를 회상하며 “매일 새벽 5시에 퇴근해 9시에 출근했던 시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2010년도에 시작해 지난해 제15회를 맞은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또한 연구원의 주요 업적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내일의 안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명과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원들이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김남용 책임연구원의 목소리에 금지의 힘이 실린다. “일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화재 위험성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

프라를 구축하고 법규도 새로 만들고 있어요. 또 조만간 상용화될 자율차가 정말 안전하지 다각도의 검증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급발진과 관련한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이 곧 사람의 안전인 현대, 구성원들의 업무 시간에 갖는 높은 긴장도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김남용 책임연구원에게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오늘의 커피타임이 더욱 소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광주광역시, 홍성, 김제 등의 센터에서도 각각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모두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안전 기준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저희 조직의 구성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연구원 분위기도 더욱 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오늘 커피트릭은 샷이 들어간 커피를 한잔 먹으려면 차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때마침 오늘이 화이트데이라 본사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애정을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오직 자동차 안전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사람들, 이들에게 오늘의 달콤 씹살한 커피 선물은 일상의 활력이자 내일을 뿔 수 있는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향긋한 커피와 함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식구들의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했길 바라본다.



MINI-INTERVIEW



직원들의 마음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용 책임연구원(연구기획처)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저희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직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만큼 그 어느 시기보다 연구원의 분위기는 뜨겁고 목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 받은 커피트릭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안마당에서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재충전하는 이 시간이 더 없는 힐링으로 오니까요. 앞으로 이런 소풍 같은 자리가 종종 마련된다면 더없이 기쁠 듯합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연구원까지 찾아오셔서 직원들의 커피는 물론, 마음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Chill'한 하루

강희진 책임연구원(결합조사1처)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리콜 등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조치로 국민의 안전 운행을 지키고 있어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한테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오늘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무척 Chill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웃음)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즐거운 활력소였어요!

하연화 선임연구원(부품연구처)

저는 자동차 등화 장치와 관련해 등화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절하게 제작됐는지, 작동하는지 조사하고 자율차 등화 장치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는 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트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인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산책하며 여유롭게 커피 한잔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오전에 잘 안 풀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후에 해야 할 일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활력소가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원들을 위해 커피트릭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 한잔의 여유, 행복합니다

엄성욱 연구원(자율주행연구처)

저는 부서에서 자동차가 정지하는 데 필요한 제동장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험 평가 과정을 마치고 실제 일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큰 보람도 느낍니다. 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커피트릭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필수잖아요.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커피 한잔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자율주행차를 위해 열정과 노력이 넘쳐나는 부서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고요. 맛있는 커피도 잘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를 날아다니는 최고의 지적(地積) 공무원입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

경기도는 TS가 2024년 11월 개최한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적조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 타 기관보다 앞서 공간정보드론팀을 신설해 행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온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공간정보드론팀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글_이경희 사진_장병국

공간정보드론팀의 역량이 날아오른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은 2017년에 조직된 팀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공간정보와 드론이 핵심 업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곳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동영상과 2차원, 3차원 영상 자료를 취득·처리해 다양한 정책 지원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드론팀과 부동산 거래, 지역 정보 확인 등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는 팀으로 나뉘어 있는 것.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전체 포털사이트 중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1일 조회수가 30만 건에 달하며 도민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드론팀이 처음 꾸려졌을 때 이들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전담으로 드론팀이 꾸려진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 팀이 만들어진 배경은 명확했다. 행정 업무상 드론을 활용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드론을 구비하기 어려웠고, 이참에 아예 대표 부서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활용 및 활성화를 해보자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올해로 8년 차, 공간정보드론팀은 그간 경기도 구석구석 하늘을 누비면서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조사 분야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공간정보드론팀의 역량은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지적조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이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적조사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희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위상과 실력이 대내외에 입증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특히 함께 고생해 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글서글한 미소가 인상적인 윤진훈 팀장이 활짝 웃는다.



윤진훈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

66

정확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취득과 결과물 검토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99



2024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촬영에 응하고 있는 공간정보드론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 참가한 윤진훈 팀장과 임세익 주무관, 고건열 주무관, 김재호 주무관은 대회 참가가 드론팀에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저희는 드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적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는 행정 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노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준비는 쉽지 않았다.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은 업무를 소화하는 틈틈이 밤낮으로 드론 조종 기술을 연마하고 영상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었다. 단순히 대회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지적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저희는 드론 운용의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했으며, 특히 정확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취득과 결과물 검토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연습하면서 어느 높이로 드론을 띄워 촬영해야 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고, 촬영한 사진 수를 조정하면서 최적의 절차를 찾아냈어요. 영상 후처리 작업을 할 때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좌표값을 뽑아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물을 제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임세익 주무관은 더불어 2021년도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꼭 최우수상을 받고 싶었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지적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지적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하.”

대회 당일 에피소드를 묻자, 고건열 주무관이 웃으며 답했다.

“예상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서 당황했지만, 팀원 모두 핫팩을 손에 쥔 채 순번이 되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이미지 트레이닝하며 준비했습니다. 또 대회 현장에서 한 사진기자님이 우연히 우리 팀을 지적조사 부문 대표로 촬영하셨는데,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돼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66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지적조사 부문 최우수상으로 검증받은 실력은 저희 팀이 가고자 하는 길의 멋진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99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적조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



‘2024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행사 진행 모습

드론 기술로 분야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지만 현대에는 강산이 바뀌는 데 1~2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정보드론팀은 경기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의 공간정보드론팀 도입은 행정 효율성 향상, 다양한 분야의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40건이던 드론 활용 요청이 2024년에는 650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지요. 사업부지 관리, 지적 분야, 위원회 심의 자료, 불법 단속, 문화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영상이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도로/교통, 도시계획, 재난 방재 등의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한 도시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윤진훈 팀장은 공간정보드론팀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촬영 계획을 수립해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도내 드론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운전자 안전교육은 물론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해 드론 전문가 양성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 지역입니다. 농어촌복합도시부터 첨단도시, 시골 등 전국 모든 지역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행정 수요도 다양해 저희도 이를 수용하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저희의 자산이 된 거지요. 그걸 나누는 것도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정보드론팀은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윤진훈 팀장의 역할이 크다. 소탈하면서 서글서글한 성품에 권위보다는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온 그에게 보내는 부하직원들의 눈빛은 애정과 존경 그 자체다.

“공간정보드론팀은 최근 5년간 약 3,034건의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12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지요. 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의 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드론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분야별 행정 지원의 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드론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지적조사 부문 최우수상으로 검증받은 실력은 저희 팀이 가고자 하는 길의 멋진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분위기를 더하는 빛과 알록달록한 색채의 조화

글라스 아트 공예

한 줄기 빛이 영롱한 색채 위에 살포시 내려앉자, 분위기가 달라진다. 공간을 화사하게 바꾸는 글라스 아트의 매력이다. 조각마다 알록달록한 컬러를 공들여 엮고, 곡선 따라 손수 납선을 이어내는 공예와 함께 TS 가족 4인이 어우러졌다.

글_오민영 사진_장병국 공방_라스크래프트



박철웅
기후탄소물류처
차장

김혜빈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

전화연
항공안전처
대리

김용수
디지털기획처
차장

어두울수록 더욱 찬란한 글라스 아트의 매력

어두울수록, 빛이 닿은 표면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질푸른 저녁 하늘 아래 온갖 색채로 세상을 물들인 글라스 아트가 한층 돋보이는 이유다. 바람조차 온기 가득한 봄밤, TS 가족이 그 오색찬란한 세계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김혜빈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과 전화연 항공안전처 대리가 마치 자매처럼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등장했다. 마침 김용수 디지털기획처 차장과 박철웅 기후탄소물류처 차장도 시간에 맞춰 찾아왔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설레는 기분으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곧이어 강미혜 강사가 나타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본격적인 소개에 나섰다.

“글라스 아트란, 영국에서 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기반의 공예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드시피 이전엔 커팅한 유리 위에 다양한 색을 입힌 뒤 선 따라 납땜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칫 상처를 입거나 파편이 튀는 등 안전상 위험할 수 있어서 질감과 투명도가 유사한 아크릴 소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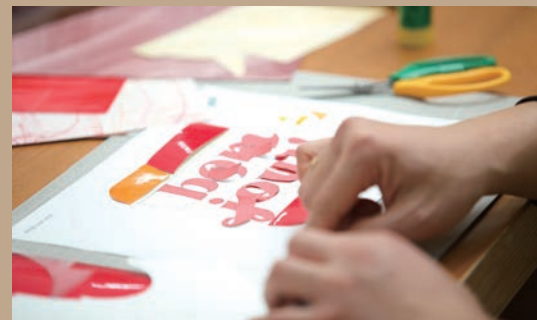
강사가 아크릴 샘플을 들어 보여주자,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혜빈 선임연구원은 유리를 다루다가 혹시 다칠지 몰라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미소 지었다. 공감한다는 듯한 웃음은 박철웅 차장이 재차 샘플을 들여다보더니 과연 우리와 비슷한데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면 ‘엄지척’을 한다.

아크릴 위에 감성을 엮는 세심한 손길

오늘 완성할 작품은 조명 커버로, 비록 제작하기 쉽지는 않으나 빛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온기 어린 감성을 자아낸다. 이러한 대상에 맞춰 테이블 위에 도안과 도면이 놓였다. 이내 선 따라 도안을 자른 다음 도면 위에 놓는 작업이 이어졌다. 비록 단순한 과정이지만, 도안 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에 허슬히 여길 수 없다. 각자 몰입해서 가위로 다듬으면서도 어디 빈 곳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눈길이 인상적이었다.

조각이 전부 모였으면, 전용 컬러 필름지를 대고 각 면에 맞게 올려줄 차례다. 이때 색상 조합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 나름이다. 전화연 대리가 만일 자유롭게 구성한 색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강미혜 강사가 다양한 작품 사례를 보여주며 친절히 안내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합이든 빛을 비추면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답변이었다.

프랑스어로 낮 인사인 ‘봉주르(Bonjour)’라는 포인트 글자와 바탕면에 적합한 컬러 매칭을 했다면 필름지를 아크릴 커버 표면에 붙여야 한다. 그 뒤에 도면을 대고 앞에 부착하면 실수할 염려가 없다. 또한, 컬러 필름지는 접착 면을 점차 떼어가며 문지르면 기포가 제거돼 한결 매끄럽게 올릴 수 있다. 전부 몰두하느라 고요한 가운데, 갓가지 색을 입힌 김용수 차장의 작품이 눈길을 모았다. 딸에게 주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만든다고 밝힌 그는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빛의 향연

마침내 마지막 순서다. 납선 테이프를 25~30cm가량 떨어내 선 따라 붙이고 자르는 작업인데, 롤러로 밀어가며 부착하면 더욱 단단히 고정할 수 있다. 얇은 납선을 모서리마다 순서대로 놓고, 테두리는 굵게 마무리한다.

드디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자, 손길이 제법 분주해졌다. 끝으로 조명 커버 안에 전구를 조립해 전선을 연결하니 작품마다 제각기 지닌 멋이 드러난다. 어두운 공간에서 바라보는 조명은 절로 환호성이 나올 만큼 찬란했다.

“역시 우리는 숨씨가 있다”며 너스레 섞인 자부심을 드러낸 전화연 대리의 한마디에 현장에선 유쾌한 호응이 뒤따랐다. 어느새 작품을 소중히 품에 안은 TS 가족 4인의 얼굴에는 글라스 아트 못지않게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Glass Art



“아름다운 빛의 향연과 어우러진 봄밤, 어떠신가요?” 글라스 아트 공예와 함께한 소감 한마디



김용수 디지털기획처 차장

평소 공예를 좋아하는데 마침 글라스 아트로 조명 커버를 손수 완성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도안을 자르고 컬러를 구상해서 매칭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비록 시간이 걸렸으나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작품 콘셉트는 알록달록하고 밝은 분위기에 어울리는 포인트이고요. 딸아이 방을 아름답게 꾸미려 합니다.



김혜빈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영롱한 글라스 아트 공예 작품에 반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방이 김천에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네요. 저는 봄날 화사하게 피어난 꽃처럼 분홍빛 시트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는데 컬러 고르는 과정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반면 납선 테이프를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완성한 조명 커버는 햇살이 잘 드는 침실에 걸어둘 예정입니다.



박철웅 기후탄소물류처 차장

인테리어 디자인, 특히 조명에 관심이 있어서 글라스 아트 공예로 꾸미면 어떨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빛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을 선택해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 뿌듯했고요. 납선 테이프 붙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 하고 나니 보람 있었습니다. 새봄에 연초록빛 색이 움트는 자연을 모티브로 만든 조명 커버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거실에 둘 계획입니다.



전화연 항공안전처 대리

우리 집에 어울리는 글라스 아트 공예 조명 커버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설렘을 안고 신청했습니다. 도안을 자르고 도면에 없는 데 오래 걸리긴 했으나 색감 조화하는 과정이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납선 테이프를 올리는 작업 또한 즐거웠습니다. 질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완성한 작품은 침실 혹은 식탁 위에 잘 꾸미고 싶습니다.

BALANCE GAME

TS 임직원의 즐거운 소통 시간, 밸런스 게임! 이번 호에는 극과 극인 동료 중 누가 더 나은지 물어봤습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일솜씨는 부족한 동료? 싸가지는 없지만 업무 능력은 탁월한 동료? TS 임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공개합니다.

정리_편집실

착하고 성실한데 일 못하는 동료



성실한 사람은 꾸준히 가르치고 업무를 알려주면 일을 잘하게 될 여지가 있으나, 싸가지 없는 사람은 본인이 일 잘한다며 거만한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업무 능력보다는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

TS는 고객인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착하고 성실한데 일 못하는 동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동료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

일머리는 키우면 되지만 천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경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김**

공공기관은 효율적으로 일해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못하는 동료는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면 전 일 잘하는 동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일을 못해서 타인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면 그게 가장 싸가지 없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은 나만 참고 견디면 되는데, 일 못하는 건 누적되면 조직의 역량이 떨어집니다.

송**

싸가지는 없지만 일을 잘해서 성과를 싸가지고 옵니다~

박**

싸가지는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에게 한 표가 갑니다. 일단 여기는 조직이고 성과를 내야 하기에 사람 품격이 싸가지 없다고 조직의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요. 다소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일 잘하는 동료가 부서 성과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반대로 일을 못하는데 착하고 성실한 직원, 그리 동정은 가지 않습니다. 역시 직장이기에 기본 일을 잘해야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건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정**

설문조사 3. 10~14.(5일간)
참여 TS 임직원 130명

73명

싸가지는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



45명

착하고 성실한데 일 못하는 동료



싸가지는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

CULTURE CHANNEL



교통안전은 일상에 스며들어 문화가 됩니다.
여행, 교양, 명화 등 다채로운 일상에서 발견하는 안전과 문화 이야기





봄빛 찬란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

KTX 타고 떠나는 순천 여행

봄꽃 잔치와 맛의 향연을 찾아가는 남도 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이다. 우리나라 최고 명소를 여럿 품은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느긋하게 쓰다닌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 천년 고찰 선암사와 송광사, 살아 숨 쉬는 전통 마을 낙안읍성 등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게 만든다. 순천행 KTX 열차의 창밖으로 펼쳐지는 남도의 들녘이 절정의 봄빛으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글·사진 양영훈(여행작가)



세계 정원과 테마 정원이 어우러진 초록 세상, 순천만국가정원

서울 용산역에서 전라선 KTX 열차에 몸을 싣고 2시간 40분 쯤 달리면 순천역에 도착한다. 1930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는 순천역에는 전라선과 경전선 열차가 모두 정차한다.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여서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다. 이 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순천의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기가 편하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선암사와 송광사 등 순천의 대표 관광지로 가는 시내버스가 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시로 출발한다.

오늘날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첫손에 꼽을 만한 곳은 2014년 봄에 공식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이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순천역과 가까워 찾아가기도 쉽다. 2015년 9월에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이곳은 순천 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동천의 물길 양옆에 자리 잡았다. 총 92만㎡(약 28만 평)의 드넓은 부지에 테마정원 16개, 세계정원 13개 등을 포함해 모두 61개에 이르는 정원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 워낙 넓고 볼거리도 많아서 한나절 이상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 쉬엄쉬엄 둘러봐야 한다. 이맘때 쯤 봄날에는 유채꽃, 벚꽃, 진달래, 튜립, 수선화, 루피너스 등의 봄꽃들이 잇달아 피고 진다.

‘순천만 갈대밭’으로 더 잘 알려진 순천만습지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직선으로 약 4km 거리의 남쪽에 위치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정원역에서 ‘스카이큐브’라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편하게 순천만습지 부근의 순천만역에 도착한다. 순천만습지의 대표 경관인 갈대밭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가장 아름답다. 순천만 일대와 들녘, 갯벌에 내려앉아 월동하는 흑두루미 등의 겨울 철새들도 제 고향으로 되돌아간 탓에 봄철 분위기는 다소 쌀렁해 보인다. 그래도 갈대숲 탐방로와 어싱(Earthing) 길을 자분자분 걷기 좋고, 천문대와 생태체험선도 이용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 1 순천만국가정원 동원의 호수정원과 각종 테마정원
- 2 전라선과 경전선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순천역
- 3 순천만국가정원 네덜란드정원의 대형 나막신과 풍차 전경
- 4 연분홍 겹벚꽃이 만발한 선암사의 4월 풍경



‘꽃대궐’ 낙안읍성과 ‘숲길’로 이어진 선암사 가는 길

순천에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데가 두 곳 있다. 낙안읍성과 선암사다. 조선 태조 6년(1397)에 토성으로 처음 쌓았다는 낙안읍성은 서산 해미읍성, 고창 고창읍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읍성 중 하나다. 둘레 1,410m, 높이 4~5m의 이 읍성 안으로 들어서면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동헌과 객사, 80여 세대의 170여 명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초가집이 무려 300채를 헤아린다.

무르익은 봄날의 낙안읍성은 ‘꽃대궐’이다. 매화, 산수유꽃, 명지꽃, 복사꽃, 살구꽃, 배꽃 등이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다.

낙안읍성에서 857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으로 17km를 달리면 선암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주차장에서 선암사 경내까지 30분 남짓 걷는 숲길의 풍경과 운치가 예사롭지 않다. 왼쪽에는 맑은 계류가 쉼 없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활엽수 울창한 산자락이 정겨운 벗처럼 줄곧 곁을 떠나지 않는다. 선암사는 신라 헌강왕 1년(875)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이다.

SUNCHAEON



5

선암사의 고매화, 천년불심길을 지나 순천만 낙조까지

선암사에서 가장 마음을 끄는 것은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들이다. 경내의 무우전과 원통전 주변에는 50여 그루나 늘어 서 있다. 수령이 400년 이상 된 것도 10여 그루에 이르고, 특히 '선암매'라고 불리는 고매화 2그루는 무려 600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2그루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매화 나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다. 이 고매화들이 단아하고 고결한 꽃잎을 펼치는 3월이면 진한 매화 향기가 선암사 경내에 가득하다. 선암매의 꽃 빛깔이 절정을 넘어설 즈음부터는 또 다른 꽃 나무들이 잇달아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장경각 옆의 산수유나무와 앵두나무, 설선당 연못 옆의 수양벚나무, 적목당 옆의 목련, 그리고 경내 곳곳에 심어진 연분홍 겹벚꽃과 붉은 영산홍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6



7

5 법보사찰 송광사의 임경당과 우화루
6 선암사의 저녁 사물 의식에서 법고를 두드리는 스님
7 순천만 서쪽 해안의 와온포구에서 바라본 해넘이 광경



신안 갯벌, 고창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된 순천만 갯벌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날아들며, 자연경관까지 아름답다.

선암사를 품은 조계산(해발 887m)은 험하거나 높지 않은 산이다. 그런데도 골짜기가 깊고 숲이 울창하다. 이곳 산자락에는 국보 4점과 보물 16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송광사도 자리 잡았다.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보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명찰이다. 동쪽의 선암사와 서쪽의 송광사 사이에는 '천년 불심길'(5.8km)이라는 탐방로가 개설돼 있어서 1년 내내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꾸준히 찾아온다. 조계산의 남쪽 산허리를 돌아 2개의 굴목재를 넘어가는 이 길로 송광사까지 걸어가려면 대략 3~4시간이 소요된다. 봄날의 나른한 햇살이 설핏 기울어지기 시작할 즈음에 다시 순천만으로 향한다. 순천만 동쪽 해안의 와온포구에서 바라보는 해넘이와 낙조를 놓칠 수가 없다. 2021년 7월에 신안 갯벌, 고창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된 순천만 갯벌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날아들며, 자연경관까지 아름답다.

여행 Tip



시티투어 버스

순천역 앞에서는 생태(화, 토), 성곽(수), 세계유산(목, 일), 산사(금) 등의 테마를 내세운 시티투어 버스가 해당 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한다. 출발 장소로 되돌아오는 시간은 당일 오후 5시 30분이며, 1인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이다. 여로관광협동조합(1899-6221)이나 예약 홈페이지(www.suncheon.go.kr/yeyak)에서 예약 가능하다.



숙박

순천만국가정원 내의 정원워케이션(061-746-2964), 순천 시내의 에코그라드호텔(0507-1451-0252), 순천만습지 근처의 더스카이폴빌라(010-6203-6629),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순천자연휴양림(061-749-8948), 낙안읍성과 가까운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061-754-4400) 등이 추천할 만한 숙소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잔디민박(010-7210-6643), 꽃담길민박(010-8899-5625) 등을 비롯한 전통 초가 민박이 많다. 선암사 초입에 자리한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061-749-4500)에서도 숙박과 다식 체험이 가능하다.



맛집

예로부터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순천에는 소문난 맛집이 유난히 많다. 순천 시내에서는 대원식당(한정식, 061-744-3582), 아랫장의 건봉국밥(061-752-0900)과 거목순대국밥(061-741-7880), 옷장 국밥 골목의 제일식당(061-753-4655)과 한우식당(061-753-7878), 금빈회관(떡갈비 한정식, 061-744-5553) 등이 유명하다. 선암사 상가지구의 장원식당(산채정식, 061-754-6362)은 남도 음식의 진가를 보여준다. 선암사 초입 근처의 진일기사식당(김치찌개백반, 061-754-5320)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기사식당이다.

음악에서 전통까지, 이색 박물관 한 바퀴

세계 최초 그 이상의 가치,
오디움

음표가 흐르는 듯한 2만여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작위로 배치한 파이프는 무질서 속 질서를 표현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의 작품이다. 차가운 알루미늄에서 '숲'의 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철제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음악'을 담은 오디오 박물관이기 때문이 아닐까. 메인 입구는 건물 옆으로 난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내부로 진입하면 알래스카에서 공수한 편백나무의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정면으로 하얀 패브릭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마주하는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의 백미를 장식하는 곳이다. 공간 뒤편에는 10만 장이 넘는 바이닐 레코드와 1만 장이 넘는 CD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저택에서나 볼 법한 대형 뮤직 박스와 100세가 넘는 미러포닉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건축 이야기만으로 압도당할 법도

Audeum



한 데, 오디움(audio+museum)의 반전은 지금부터다. 지상 5층, 지하 5층 규모의 오디오 박물관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낸다. 근원은 설립자인 정몽진 KCC 회장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빈티지 오디오 수집가답게 박물관에서 확인한 그의 컬렉션은 문화적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장(場)이다. 오디오, 음향, 건축, 문화 애호가들은 이곳을 아지트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애호가뿐이라. 2시간여 오감을 사로잡는 '정음(正音)' 프로그램을 들은 누구나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투어는 3층에서 시작해 2층, 1층으로 이어진 후 지하 2층에서 끝이 난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5회, 회당 정원 25명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 문의 02-574-5175
-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8길 6
- 예약 audeum.org
- 관람 요금 무료

플라톤은 음악을 두고 "영혼의 음식이다"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세계로 여는 문"이라 말했다. 저 너머의 세상을 한걸음에 가까이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음악박물관이다. 세계 최초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오부터 60년 수집광의 집념으로 만들어낸 강릉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우리나라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 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2025 세계국악엑스포'가 열릴 영동국악체험촌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가 보자.

글, 사진, 김지혜(여행작가)



소리의 향연, 참소리축음기박물관

푸른 동해를 지키고 선 강릉은 아름답다. 관동 8경 중 으뜸이라는 경포호수 앞에 위치한 참소리에디슨손성목영화박물관에서는 1만여 점의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참소리축음기박물관에선 축음기 4,500여 점, 음반 15만 장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축음기가 전시되어 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강릉에서 자연의 소리를 담은 참소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곳. 1982년 강릉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식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닥다닥 붙어 앉은 전시품 사이로 흥미로운 사연들이 액자에 담겨 있고, 순회하며 알찬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참소리축음기박물관인 본관 1층에서 관람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팔 모양의 수많은 축음기와 서커스 오르간을 볼 수 있다. 또 각종 아름다운 모형의 나팔 축음기와 포터블 축음기, 어린이 축음기 등 2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는 음악감상실. 축음기 레코드 모양의 원반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축음기 소리부터 현대의 모든 소리를 이곳에서 재현해낸다. 10여 종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즉석에서 신청해도 바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Chamsori

- 문의 033-655-1130
-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393
- 관람 시간 10:00~16:40
- 관람 요금 일반 1만5,000원, 어린이 9,000원





초의 상업음반인 1907년 경기민요 '다정가' 레코드도 여기에 있다. 유충희 관장은 30년 이상 자료를 수집했고, 윤복희, 장옥조 등 여러 뮤지션이 자료 기증에 동참했다. 방탄소년단 국내외 팬들이 기증한 자료도 다양하다. 세계적인 음향 회사의 희귀한 장비를 통해 신청곡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주변으로 약 1.033ha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보문공원은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했으니, 봄날 드라이브와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 ☎ 문의 054-776-5502
- 📍 주소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9
- 🕒 관람 시간 13:00~18:00 (토·일요일 10:00~)
※월·화요일 휴무
- 💰 관람 요금 어른 1만5,000원, 어린이 8,000원

2025 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영동국악체험촌

신라의 우륵, 고구려의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 영동이다. 박연은 악보와 악기를 정리한 악서를 편찬하고 대고와 석경 등 아악기를 제작했다. 그래서 영동은 국악을 널리 알리는 본고장의 역할을 하며, 관련 체험과 전시를 다양하게 마련한다. 심천면에 자리한 국악체험촌이 '우리 소리'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국악체험촌은 7만 5,95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3채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을 테마로 하루 종일 즐길 만한 곳.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 있는 천고각이다. 지름 5.54m, 무게 7톤에 달한다. 제법 큰 북채를 있는 힘껏 휘두르면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울린다. 오는 9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박물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시기 세계인의 발길이 이곳으로 몰릴 듯하다.

Gugak



- ☎ 문의 043-740-3886
- 📍 주소 강원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9
- 🕒 관람 시간 09:00~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휴무
- 💰 관람 요금 어른 2,000원, 어린이 1,500원

대중음악 100년 역사,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울고 웃었을까. 한국인의 히로애락은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 담겨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에서 두 번째 정부 공인 1층 박물관이 된 것도 방대한 자료가 한몫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팝까지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 이곳이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또 다른 이유는 tvN <알쓸신잡>과 JTBC <캠핑클럽>에 소개됐기 때문. 큼지막한 기타 조형물이 건물을 장식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전시관 곳곳에 음악 퀴즈를 푸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지만 계단 피아노 같이 재미난 장치가 여기저기 있어 흥미를 더한다. 박물관 3층은 오디오 100년사관으로 1926년 제작된 인류 최초 스피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연설할 때 사용하던 스피커 등 각종 희귀 스피커를 관람 및 청음할 수 있다. 2층에는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일제강점기에 들던 위로의 음악, 1940년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 세계를 강타한 K-팝까지 국내 대중음악사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국내 최

Kpopmuseum



장 베로의 '볼로뉴 숲의 자전거 별장'

19세기 파리를 누빈 자전거

글 정은숙 작가(전시기획자)



장 베로, '볼로뉴 숲의 자전거 별장', 1900, 카르나발레 박물관 소장

파리 시내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쉽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벨리브(Velib)'가 있다. 벨리브는 자전거(velo)와 자유(liberte)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1900년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다. 장 베로(Jean Béraud, 1849~1935)의 '볼로뉴 숲의 자전거 별장'이라는 작품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잠시 그 시대를 여행해 보자.

그림의 시대가 된 벨 에포크, 그림의 배경이 된 볼로뉴 숲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의미를 지닌 벨 에포크(Belle Époque)는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시대를 일컫는 용어다. 귀족, 상류층이 주축이 된 사회로 경제·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했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철도·자전거·자동차·증기선·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파리 토박이인 장 베로는 19세기 인상파 화가로, 주로 이 시기에 파리의 풍경이나 풍속, 또는 도시를 한가하게 산책하는 파리지영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곤 했다. 상젤리제, 카페, 몽마르트르, 센 강둑이 그의 작품 속 주된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거리 모퉁이에 마차를 세워놓고 파리 상류층의 일상을 하루 종일 묘사 하곤 했다.

파리는 파리1구부터 20구까지 구획이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의 종로구, 서초구 같은 구획의 의미다. 그 중 16구는 파리에서 제일 부유한 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에펠탑, 상젤리제와도 가까운 거리다. 16구에 있는 볼로뉴 숲은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가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에 버금가는 넓은 공원을 만들도록 지시해 탄생했다. 특히 이 공원은 화가 마네를 비롯해 르누아르, 고흐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소재로 자주 등장했던 만큼 아름다운 숲을 자랑한다.

자전거, 이동의 자유를 열다

19세기는 교통혁명이 일어난 시기다. 산업화와 함께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철도가 발달했고,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던 유럽의 거리에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파리에서 자동차는 상류층 일부만 소유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일반 시민은 여전히 마차나 도보에 의존했으며, 대중교통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39년부터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말을 타지 않고도 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중산층까지 확산되었다. 당시 자전거는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도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갔다.

자전거와 여성 바지 '블루머'

자전거 보급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발전을 넘어 사회적 변화까지 불러왔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유럽에서부터 상용화된 자전거는 당시 여성 권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패션의 변화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장 베로의 '볼로뉴 숲의 자전거 별장' 그림을 보면,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지금이야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분명 19세기 당시에는 스캔들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교계와 일상에서 피할 수 없었던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19세기 중반 여성운동가 블루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여성용 바지 '블루머(Bloomers)'를 입고 있다. 블루머는 자전거 보급으로 다시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많은 여성이 복장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장 베로의 그림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로 인해 자유와 자립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여성들은 자전거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자유의 기계(Freedom Machine)'라고.

교통안전

WHY? HOW?

평소 독자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 궁금증을
사연을 통해 풀어보는 코너
정리.편집실



김나○ 님

Q. 유턴 시 자동차 우선순위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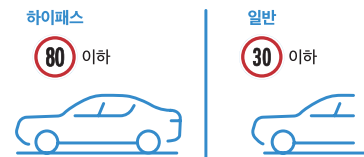
유턴 시 자동차 우선순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초보 운전자로서 헛갈리네요. 유턴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차량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박수○ 님

Q.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진입 시 속도 줄이는 기준이 있나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km/h까지 감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톨게이트와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속도제한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전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네, 기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의 속도제한을 준수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감속이 필요합니다.



일반 톨게이트와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속도제한

일반 톨게이트 차로에서는 대부분 통행료를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30km/h 이하로 감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는 통행료가 자동으로 지불되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80km/h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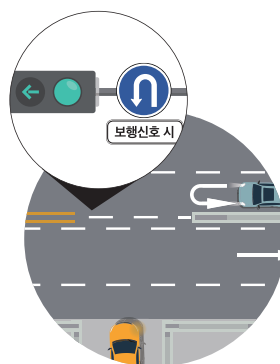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에 진입하면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과속으로 인해 톨게이트 기둥이나 장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손상만 아니라 시설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

각 톨게이트 구간의 속도제한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톨게이트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한 주행을 유지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A. 유턴할 때 우선순위는 초보 운전자로서 헛갈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턴 전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유턴 차와 우회전 차의 통행 우선순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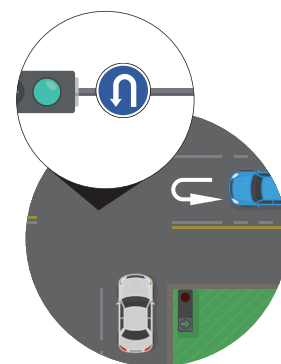


유턴 신호 및 유턴 가능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경우

유턴 차가 통행 우선권

유턴 차가 신호에 맞춰 유턴할 때, 우회전 차는 유턴 차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 신호_ 직좌 신호, 좌회전 신호, 적신호, 보행신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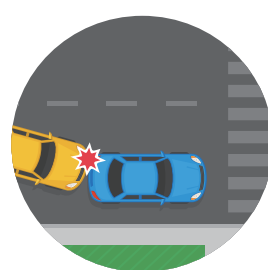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와 우회전 전용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 경우

우회전 차가 통행 우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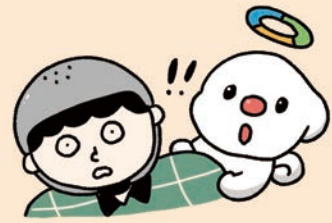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에서는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 차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차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통행 우선권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
우선권을 속지해 안전하게 통행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타는 건 킥보드지, 위험이 아니잖아?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카툰 JUNO



무면허 시 10만 원 범칙금,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인도 주행 시 3만 원 범칙금입니다.



2인 탑승은 정말 위험하다고!
1인 탑승을 위반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야!



여러분 오늘도 전동 킥보드가 아닌
위험을 타고 계시진 않나요?
이용 전, 주의 사항 꼭 체크!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을 지키며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동네 스쿨존,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아이들의 교통안전 지키는 스쿨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스쿨존 안전을 높일 아이디어를
독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리_편집실



주민들이 함께 스쿨존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거나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김나○



스쿨존에는 모든 방향 횡단보도
신호(All Red, All Green)가 많습니다.
이때 우회전도 금지되는데, 녹색신호
깜박일 때, 슬금슬금 이동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All Green 신호일 때
‘모두 멈춤 캠페인’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 유수○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스쿨존 도로 옆에
‘안전 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필○



통학로의 가로수, 보도블록
등을 정비하고 협소한
통학로의 경우
‘보도를 확장’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명○



스쿨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노란색 도로
표지판,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한요○



스쿨존 구간 지그재그 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운전자에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도로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스쿨존 구간을 명확히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명○



학부모와 주민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 **‘서행하세요’**, **‘멈춰주세요’**
같은 피켓을 들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캠페인을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해 경고하고,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합니다.

- 신승○

봄호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20명

박고○ 3124
이현○ 4282
김나○ 7041
지승○ 8800
유수○ 0822
김미○ 0903
임혜○ 6243
김환○ 1872
신승○ 3124
박태○ 1835
윤아○ 8734
박수○ 8870
김필○ 8797
유재○ 9107
강명○ 6246
이승○ 7220
서진○ 7064
이명○ 7198
한요○ 1823
신지○ 0315

*이름 두 글자와 휴대전화 뒤 네 자리로 표시
상품 지급일: 4월 10일

*문의 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S 매거진과 함께하는 초성 퀴즈 이벤트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TS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초성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네모 칸에 들어 있는 초성을 참고해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TS 매거진을 만들기 위한 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1

이번 호 'TS 스페셜 채널'에서는 TS 핵심가치 중 'OO'에 관해
집중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Hint 8~9p 'TS 스페셜 채널' 간지



Q2

TS 산하 기관으로,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물론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및 리콜 관리,
미래 모빌리티 연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Hint 44~49p 'TS 커피 충전소'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되는
구글폼에 퀴즈 정답(2개)과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참여 기간

2025년 4월 15일까지

지급일

2025년 4월 30일
(총 10명 추첨, 순차적 배송 시작)

당첨자 발표

보호 웹진

당첨 선물

정답자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
(퀴즈: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

*문의 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당첨자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로 표기

권OO 8244 조OO 9049 윤OO 7874 이OO 1865 차OO 7005

백OO 9761 황OO 6771 강OO 0175 이OO 7241 신OO 6587



4월 15일까지 TS 매거진 보호 독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 구독/취소,
주소 변경 신청
T. 02-2090-6752

졸음운전 무조건 주의

오늘도
무사GO

졸음운전 예방법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 공기 순환



- ✓ 주기적 환기로 신선한 공기 유지
- ✓ 에어컨/히터 사용 시 외기 순환 모드 활용

휴게소 및 졸음쉼터 이용하기



- ✓ 최소 10~15분간 휴식
- ✓ 장거리 운전 시 2시간 간격 휴식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 ✓ 목과 어깨 근육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 ✓ 다리와 허리 펴는 동작으로 혈액순환 촉진

졸음 방지용품 사용



- ✓ 껌, 커피 등 섭취
- ✓ 졸음 방지 패치 사용